

튀르크 설화에 나타난 이슬람의 영향*

김 효 정**

차 례

- I. 머리말
- II. 튀르크 설화 개관
- III. 튀르크 설화 속의 이슬람 요소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A00021).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Abstract>

Islamic Influences on Turkic mythologies

Kim, Hyo-Joung

PUFS

Mythology, as time goes, has derivations of the similar motif, being modified by both social changes and one who introduces it, this phenomenon appears too evidently in mythologies of nomadic peoples like Turkic tribes in Eurasia. Mythological motifs, which were transmitted from mouth to mouth through history, produced modified versions, by adding new motifs or eliminating some original one.

Karakhanids among Turkic tribes for the first time accepted Islam religion in the 10th century and followed by the other Turkic tribes in Central Asia. As their life and culture were drastically changed after Islamization since the 10th century, their mythologies and folktales also were much affected by the change.

Ancient Turkic mythologies contained ancient way of thinking, world view and indigenous and original cultural features of ancient Turkic tribes. After Islamization, Islamic elements were added to their mythologies and folktales, while non-Islamic elements were eliminated or sometimes replaced by Islamic motifs. However, we can still find not a few original symbols and motifs in contemporary Turkic mythologies.

Key words : Turkic Mythology, Nomadic Cultures, Shamanism, Islam

I. 머리말

1. 연구 목적

튀르크 설화란 튀르크족의 역사상의 조상인 돌궐족에서부터 역사 속에 등장한 여러 튀르크족과 현재 유라시아 튀르크족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튀르크족의 설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국 신강 위구르족으로부터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크족과 소아시아의 터키족 및 동부유럽의 가가우즈족의 설화에 이르기까지 독립된 국가를 형성했는지 소수민족으로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지 모든 튀르크족의 설화를 포함한다.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수 세월을 지나 계승되는 가운데 각 시대 및 사회의 변천과 설화를 소개하는 사람에 의해서 각색 및 변형되어 유사한 모티브를 지닌 변이형들이 존재하게 된다. 계속 이동을 하는 유목민족에게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 오던 신화적 모티브들은 시대에 맞게 첨가되고 삭제되어 유사한 설화를 탄생시킨다. 동일한 내용을 다룬 신화가 주인공을 바꾸어 돌궐족의 기원신화로 소개되기도 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몽골족의 기원신화로 소개된다.

유목민족인 튀르크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은 10세기에 중앙아시아에 세워진 카라한조 때이다. 이슬람을 수용한 이후 튀르크족의 삶과 문화는 큰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설화 가운데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튀르크 설화에는 튀르크족의 원시사고와 세계관 및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들이 반영되어 묘사되는데 이슬람을 수용한 이후로는 이슬람 요소가 첨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설화에 이슬람 요소를 가미하거나 이슬람 정서에 위배되는 부분은 삭제 혹은 다른 모티브나 내용으로 대체한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튀르크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는 튀르크 설화가 이슬람의 영향으로 그 구성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각색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여러 튀르크 설화 가운데 이슬람의 영향으로 변형되어 이슬람 요소가 포함되거나 삭제된 오우즈카간 설화, 튀르크족의 종족기원신화, 사투 부우라한 설화, 키르기족의 사슴설화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튀르크 설화 가운데 이와 같은 설화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우즈 카간 설화와 종족기원설화는 튀르크 설화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웅설화의 기원이 되는 설화로서 튀르크족의 원시사고와 세계관 및 고유한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 오우즈카간 설화와 종족기원설화에는 이슬람 수용 이후 이슬람의 영향으로 그 내용이 첨삭된 변이형들이 존재하는데 원형과 비교 및 분석한다. 둘째, 튀르크족의 역사상 최초의 조상인 돌궐족은 유목민족으로서 그들의 종교는 천신신앙과 조상숭배 및 샤머니즘 등과 같은 원시신앙 형태였다. 이슬람 수용 이전의 튀르크족의 설화에는 이들의 원시신앙을 나타내는 그들의 고유한 사고와 정서들이 반영되지만 이슬람 수용 이후 이슬람 요소가 가미되었다. 종족기원신화에 이슬람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이슬람 수용 이후에 각색된 신화임을 의미한다. 셋째, 이슬람을 수용한 최초의 튀르크계 국가는 카라한조이다. 카라한조의 사투부우라한(Satuk Bugra Han) 설화를 통해서 튀르크족의 전통적 신앙과 이슬람 수용 당시의 과도기적 상황을 살펴본다. 넷째,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후 튀르크족의 신앙대상이 그들의 고유한 신인 천신, 텡그리(Tengri)에서 알라로 바뀌고 그들의 고유한 상징들에 이슬람 요소가 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키르기즈족의 사슴설화를 통해서 튀르크족이 이슬람을 수용하면서 그들 고유의 원시사고와 정서를 나타내는 튀르크족의 고유한 모티브가 이슬람의 수용과 함께 어떻게 융합되고 첨삭 및 각색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튀르크 설화 개관

1. 튀르크 설화의 형성과 전승자

돌궐족은 유목민족으로서 유래없는 그들의 고유한 문자를 창제하여 기록을 남긴 민족으로 8세기 이후 그들의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겼지만 돌궐문자로 기록된 그들의 설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튀르크족의 설화는 중국, 페르시아, 아랍, 몽골 등 주변 민족의 기록과 튀르크족의 기록에서 발견되며 19세기에 밋덴도르프, 뵘호트링 등 서구학자와 라들로프, 뷔르빗스키, 포타닌 등 러시아 학자들에 의하여 유라시아에 구전되어 오던 설화 및 서사시들이 수집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설화가 그러하듯 튀르크 설화도 튀르크족의 정체성과 그들의 원시사고에 민족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튀르크족 고유의 민족정서를 반영하며 설화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그들이 바라는 이상세계를 나타내고 후세에 교훈적 성격을 담은 것이다. 튀르크족 설화는 유목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듯 긴 문장을 서술하는 이야기 형식보다는 함축적이고 간결한 단문형식의 서사시가 발전하였다.

튀르크 설화의 형성과 전승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 자는 샤먼이었다. 샤먼은 샤머니즘의 종교적 의식과 구성원의 모든 행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신이나 영적 존재들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이다. 이슬람 이전 고대 튀르크 사회에서 샤먼은 사냥대회나 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때 샤먼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조상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을 있는 그대로 혹은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전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샤먼의 역할은 후대에 전통 악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구전되어 오는 시를 읊은 전통음송시인(asik)¹⁾에 의해 전승되었고 구전 시들은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었다(Günay 1992, 169-175; Ekici 2006, 85).

1) 이러한 전통음송시인들은 울룽호트, 가이치, 코샤즈, 테스탄즈, 박취, 지라브, 마나스즈, 샤이크, 오잔 등 유라시아 여러 튀르크족 가운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Reichl 1992, 57-87).

2. 데스탄(destan)과 설화

튀르크 설화는 학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슬람 이전의 튀르크 설화와 이슬람 수용 이후의 튀르크 설화로 분류된다²⁾. 튀르크 설화는 튀르크 문학의 한 형태인 데스탄(destan)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데스탄을 영웅 서사시(epic)로 번역하지만 튀르크 문학에서 데스탄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서 단순히 영웅 서사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운율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슬람 이전과 이후의 모든 형태의 운문 작품들을 포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Elcin 2005, 155). 뿐만 아니라 천지창조신화나 영웅신화 및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신들의 이야기, 초자연적이고 황당무계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신화적 내용에서부터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사건 및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등 그 내용 또한 광범위 하고 다양하며 형태 또한 운문만이 아니라 이야기체의 산문도 포함된다(Elkici 2006, 83-95). 그러므로 데스탄은 한 어휘로 대체될 수 없고 작품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서사시, 신화, 설화, 전설, 이슬람 이전 이후의 운문 등도 포함한다.

튀르크 데스탄은 튀르크족의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데스탄은 튀르크족의 문학작품이면서도 튀르크족의 역사와 문화사를 반영한다. 데스탄의 주제는 대부분 역사 사실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과 그 시대를 풍미한 영웅들 및 시대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데스탄은 역사적인 자료들뿐만 아니라 튀르크족의 관습, 전통, 풍속, 생활양식 등을 알려주며 사료에서 간과되는 지식과 정보를 데스탄에서 얻기도 한다. 한편 데스탄은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 형태에서 후대에 기록된 작품이기 때문에 언어사와 방언연구 등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튀르크족들은 데스탄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영웅들을 연결시키면서 자신들 고유의 공통체적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며 자신들의 열망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자기 종족이 바라는 기대와 가치 등을 이상화시키며 자신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김효정 2007, 435-437)

들의 과거 속의 기억과 융합시켜서 역사적 사실인 양 묘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탄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역사와 관계가 있으나 역사적 사료는 아닌 것이다(<http://www.turan.tc/td/destan.html> 2008.09.10.). 튀르크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갈 전쟁영웅을 열망하여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는 데스탄(영웅서사시, 영웅설화)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데스탄의 내용은 전쟁영웅인 주인공의 정복과 영토 확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영웅담을 중심으로 신화적 영웅의 활약을 묘사한 것이 주를 이룬다. 데스탄에는 영웅의 출생 및 정복사업 묘사 과정에서 기이한 이적과 신화적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데스탄 자체를 신화라고 볼 수는 없다. 가축을 방목하며 가축에 의식주를 의지하는 유목민족에게 있어 영토를 보존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지도자는 곧 전쟁영웅으로서 유목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시대의 필요와 백성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웅 데스탄(영웅서사시, 영웅설화)을 낳게 했던 것이다. 튀르크 데스탄 가운데 키르기즈족의 ‘마나스 데스탄’ 만이 전체가 보존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튀르크 데스탄은 부분적으로 전해지거나 요약 및 인용된 부분이 전해진 것이다.

III. 튀르크 설화 속의 이슬람 요소

1. 오우즈 카간 설화

오우즈 카간 설화는 그 생성시기가 튀르크 설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³⁾ ‘오우즈’ 라는 튀르크족 지도자의 일대기이다. 오우즈 카간은 튀르크족의 전설상의 존재로 주변의 유목민족과 전쟁하며 튀르크족의 영토를

3) 오우즈 카간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늘, 해, 달, 별, 산, 바다 등 자연의 이름을 붙여 준다. 저명한 튀르크 민속학자 이난(Inan)은 이것이 튀르크족의 원시신앙인 정령숭배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가장 오래된 튀르크 설화의 증거라는 것이다(Inan 1976, 379).

확장시킨 전쟁영웅이다. 항상 이동하는 유목민족의 생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형식은 이야기체지만 형성시기에는 서사시 형식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오우즈 카간 설화는 일반적으로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파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12-14 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위구르 문자로 기록된 설화이고⁴⁾ 다른 하나는 14세기 일한국의 재상인 라시드 앓 딘(Rashid ad-Din)이 저술한 『집사(集史 Jâmi' at-tavârikh)』 제 1 권 「부족지」 제 1 편 오우즈족편에 기록된 설화이다.⁵⁾

무슬림인 라시드 앓 딘이 기록한 오우즈 카간 설화는 이슬람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멘크베 형식이다. 멘크베란 튀르크족이 이슬람을 수용한 후 입에서 입으로,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구전문학의 형태로 전해져 오던 서사시들이 기록문학형태를 갖추면서 그 내용에 이슬람 요소가 가미되고 원형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한 유형이다.

몽골제국시대에 위구르 사면에 의하여 기록된 위구르 문자로 기록된 오우즈 카간 설화는 그 원형으로 보이며 튀르크족 고유의 유목민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티브와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다음의 오우즈 카간 설화(A)는 이슬람 포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오우즈의 탄생에서부터 결혼에 이르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라시드 앓 딘 2002, 105-106):

오우즈는 태어나자 사흘 동안 그의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렸다. 어느 날 꿈에 갓난아이가 만약 엄마가 무슬림이 되면 엄마의 젖을 빨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우즈의 어머니는 무슬림이 된다. 오우즈가 한 살이 되어 관습에 따라 그의 아버지 카라한이 잔치를 베풀고 부족민들과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 줄지를 상의한다. 이 때 오우즈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오우즈'임을 밝히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오우즈'라고 이름 짓는다. 오우즈가 결혼

4) 1936년에 방(W. Bang)과 아랏(R. R. Arat)에 의해 출간되었다. Reşid Rahmeti Arat, "Oğuz Kağan Destanı", *Makaleler cilt I*, Ankara, 1987, pp 605-672.

5) 부족지에서 발췌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기록이 더 존재한다. 하나는 17세기 에 불가지 바하드르 한이 저술한 「세제레이 테라키메」에 있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우준코프류에서 발견된 서사형식의 오우즈 카간 설화이다(Inan, 1968, 224-225).

할 시기가 되어 그의 아버지는 자기 동생의 딸을 오우즈에게 주었다. 오우즈는 삼촌의 딸에게 무슬림이 될 것을 권하였으나 그 소녀가 거부하자 그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또 둘째 동생의 딸을 오우즈와 결혼시켰다. 이 소녀도 무슬림이 되기를 거부하자 오우즈는 그 삼촌의 딸도 사랑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우즈는 사냥에서 오는 길에 다른 삼촌의 딸을 만나 자신의 결혼에 대한 비밀을 밝혔다. 그 소녀가 오우즈의 말과 지시를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여 알라를 사랑하겠다고 하자 오우즈는 이 소녀와 결혼한다...〈하락〉...

이와는 달리 다음의 오우즈 카간 설화(B)는 12-14 세기경에 위구르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파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32년에 방(W. Bang)과 아랏(R. R. Arat)에 의해 최초로 출간되었다. 다음은 오우즈의 출생에서부터 결혼에 이르는 부분을 요약한 것인데 튀르크족의 유목민족적 정서와 천신사상 및 그들의 고유한 세계관과 원시사고를 엿볼 수 있는 여러 모티브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오우즈 카간 설화 (A) 유형과는 확연히 다름을 볼 수 있다:

오우즈가 태어날 때 얼굴은 푸르고, 입은 불과 같이 빨갛고, 눈과 머리와 눈썹은 까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의 초유를 뺀 이후 다시는 빨지 않았다. 먹을 것을 원하더니 말하기 시작하였다. 40일 동안에 성장하더니 돌아다니며 놀기 시작했다. 오우즈의 발은 황소의 발과 닮았으며 몸체는 이리의 몸체와 닮았고, 가슴은 곰의 가슴과 닮았고, 옆구리에는 털이 나 있었다. 말의 무리를 몰고 다니며 말을 타고 허락도 받지 않고 사냥을 다녔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되었다. 그 당시 이 나라에 큰 숲이 하나 있었다. 그 숲 속에는 시내와 강과 샘물이 흐르고 동물과 새들도 많았다. 이 숲에 거대한 괴물이 하나 있었다. 말들을 갈기갈기 찢어 먹고 사람들은 꿀꺽 삼켰다. 영웅 오우즈는 이 괴물을 죽이리라 결심을 했다. 어느 날 창과 활, 화살, 칼, 방패 등을 가지고 말에 타고 사냥을 나갔다. 한 사슴을 잡았다. 이 사슴을 가죽 줄로 나무에 묶은 후 그곳을 떠났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뜰 때 그곳에 갔더니 괴물

이 그것을 가져간 후였다. 이 때 곰 한 마리를 잡아 금으로 장식된 허리 띠로 나무에 묶은 후 그곳을 떠났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뜰 때 그곳에 가 보니 괴물이 그것도 또한 가져갔다. 이제는 오우즈가 나무에 앉아 기다렸다. 괴물이 나타나더니 그의 머리를 오우즈의 방패에 부딪쳤다. 오우즈는 창으로 그의 머리를 쳐서 죽이고 칼로 그의 머리를 자른 후 그곳을 떠났다. 오우즈가 그곳에 다시 왔을 때 까마귀 한 마리가 그 괴물의 내장을 먹기 위하여 온 것을 보고 그 까마귀도 죽였다. 어느 날 오우즈가 신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더니 하늘로부터 푸른 광채가 떨어졌다. 해보다도 달보다도 더 광채가 났다. 오우즈가 그곳에 가보니 그 빛의 한 가운데에 소녀가 혼자 앉아 있는데 매우 아름다웠다. 그의 머리에는 북극성과 같이 반짝이는 표시가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녀가 웃자 푸른 하늘도 웃고, 소녀가 우니 푸른 하늘도 울었다. 오우즈는 그 소녀를 보자 뉘이 나갔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 데리고 왔다. 세월이 흘러 오우즈는 그 소녀에게서 세 아들을 얻어 각각 '해', '달', '별'이라고 이름 지었다. 어느 날 오우즈는 사냥을 갔다. 멀리서 어느 호수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와 나무의 문 앞에 홀로 있는 소녀를 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녀를 본 사람은 기절하고 우유 혹은 마유주가 되어 흐를 것이다. 오우즈가 그 소녀를 보고 뉘이 나갔다. 그를 사랑하여 데려 왔다. 세월이 흘러 오우즈는 그 소녀로부터 세 아들을 얻어 각각 '하늘', '산', '바다'로 이름 지었다....

오우즈 카간 설화(B)에서는 출생과 결혼에 이르는 그의 행적을 유목민족적 사고와 기대에 부합된 초인간성에 집중되어 묘사하고 있다. 그의 초인간적인 모습은 초유를 뺀 이후 먹을 것을 원하고 곧 말하기 시작한다. 오우즈의 형체는 튀르크족들이 신성시 여기는 황소, 이리, 곰 등 유목민족들의 신화적 동물들을 등장시켜 묘사하였다. 또한 유목민족적 전통에 따라 그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을 몰고 다니고 사냥을 하며 괴물을 죽인다. 이러한 일련의 능력 있는 유목민족의 남아로서 실력을 발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비로소 결혼 대상자를 만난다. 오우즈가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고 신이 한 인물이듯이 그의 배우자들도 모두 신비함과 초인간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상징들과 함께 등장한다.

한편 오우즈 카간 설화(A)에서는 오우즈의 행위가 이슬람 전파에 집중되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우즈가 태어나서 사흘 후 자기 어머니에게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젖을 빨 수 없다고 하며 이슬람에 개종을 거부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무슬림이 될 처녀와 결혼한다. 후반부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두 아내가 오우즈에 대한 불만을 시아버지에게 이야기 하는 부분이 나온다. 무슬림이 되기를 거부한 두 아내는 오우즈가 자기 종족의 신과 전통을 버리고 무슬림이 된 뒤 두 아내가 무슬림이 되기를 거부하자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자질한다. 이에 오우즈의 아버지 카라한은 오우즈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종족의 신앙을 버렸으니 살려 둘 수 없다고 자기 아들인 오우즈를 공격한다. 그러나 오히려 오우즈의 아버지 카라한이 칼에 맞아 죽고 오우즈가 종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킨다(라시드 앓 딘 2002, 107-108).

2. 에르게네쿰 설화

다음의 ‘에르게네쿰 설화’는 일한국의 재상인 라시드 앓 딘이 저술한 『집사(集史)』의 제 1권 부족지 제 4 편 몽골족에서 몽골족의 설화로 기록되어 있지만 중국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돌궐족의 기원신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라시드 앓 딘도 제 4 편 몽골족편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몽골계 튀르크족 즉 몽골족은 튀르크 종족 전체의 한 부류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의 ‘에르게네쿰 설화’는 라시드 앓 딘의 『집사(集史)』에서 요약한 것이다(라시드 앓 딘 2002, 252-254):

다른 종족들이 연합해서 몽골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 단지 키안과 네쿠즈만이 살아남았다. 이들은 각각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적들을 피하여 험준한 곳으로 도망쳤다. 이곳은 주변이 모두 산과 숲으로 매우 위험했지만 그들은 좁고 험한 들어오는 길 밖에 없는 곳으로 들어오자 산지 중간은 목초가 풍부한 아름다운 초원이 있었다.

이곳의 이름이 에르게네쿤이다.

산과 숲 사이에 사는 자손이 번성하여 공간이 좁아지자 험준한 계곡과 좁은 산길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책을 상의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철 광맥을 찾아 그 둘레에 나무와 석탄을 칸칸이 쌓고, 일흔 개의 가족으로 풀무를 만들어 일흔 곳에 놓은 후에 불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이 불은 철 광맥을 녹이고 길이 생기자 그들은 산 속에서 넓은 초원으로 나왔다.

『집사(集史)』 부족지의 몽골족편에 기록된 에르게네쿤 설화가 중국 연대기의 돌궐족의 기원신화와 다른 점은 이리가 조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에르게네쿤 설화의 원형이라 볼 수 있는 중국 연대기에 기록된 돌궐족의 기원신화이다(周書 돌궐전):

돌궐은 흉노의 일파로 그 姓이 아사나(阿史那)이다. 돌궐은 독립된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 인접 국가의 공격을 받아 전 부족이 몰살당하였는데 열 살 난 남자아이만 살아남았다. 병사가 이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리를 잘라 늪에 버렸다. 이 남자아이를 이리(狼)가 먹여 길렀다. 그 소년이 장성하여 이리와 합하여 이리가 잉태하게 되었다. 적의 왕이 이 아이가 살아 있음을 듣고 곧 죽일 것을 명하여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가 보니 이리가 그 옆에 있었다. 이리도 함께 죽이려 하자 이리는 고창국(高昌國)의 북산(北山)으로 도망하였다. 그 산에는 동굴이 있었는데 그 곳은 땅이 좋고 풀이 무성한 곳으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리는 그 동굴에서 열 명의 아들을 낳았다. 열 명의 아들이 장성하여 각각 아내를 취하여 각각 姓을 취하였는데 아사나(阿史那)는 그 중의 한 성(姓)이다. 자손이 번창하여 점차 수백 가(家)에 이르렀다. 수세대가 지나 모두 그 동굴에서 나와 여여(茹茹)의 신하가 되었다. 금산(金山)의 양지바른 쪽에 자리를 잡고 철공(鐵工)으로 일했다. 이 금산의 모양이 투구(兜鍪)와 같아서 투구의 이름을 따 돌궐이라 부르면서 그 이름이 되었다.

에르케네쿰 설화에서 한 종족의 멸절과 살아남은 아이가 협곡에 들어가 자손이 번창하여 산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모티브는 주서에 기록된 돌궐족의 기원신화와 매우 유사하지만 돌궐신화에서 등장하는 조상으로서의 이리 모티브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시드 앳 딘은 무슬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리와 인간이 합하는 내용이나 이리를 조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삭제한 것이다. 돌궐신화는 라시드 앳 딘의 에르케네쿰 설화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목민족의 생활과 국가체제와 관련이 있다. 유목민족의 국가체제는 부족과 부족의 연맹에 의해 국가를 형성하는 부족연맹체이다. 당시의 정세에 따라 부족의 연맹과 해체가 반복되는 체제는 유라시아 유목민족 가운데 서로 공통된 유목문화와 구전문학을 공유한다. 자기 종족 출신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 유목민족국가의 지도자는 곧 자신과 자기 부족의 지도자인 것이다. 무슬림인 라시드 앳 딘이 이미 기록에서 읽거나 구전되어 알고 있던 돌궐족의 신화를 몽골족 징기스칸의 계보와 연결시킨 것이다. 튀르크족 가운데 널리 알려진 신화내용이 13세기 당시 유라시아를 제패한 유목민족의 영웅인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 아래 재구성된 것이다. 이는 유라시아에 몽골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과 그의 종족인 몽골족에게 신성함을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유목민족들 사이에 회자되어 오던 신화를 재현시킨 것이다. 라시드 앳 딘은 그의 저서에서 징기스칸의 계보를 키안의 후손으로 연결시킨다. 그는 튀르크족과 몽골족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몽골은 튀르크족에 속하는 한 종족에 불과했으나 400년 만에 수많은 지파가 그들에게서 나오고 다른 종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져 그들의 권위 때문에 이 지방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그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시드 앳 딘 2002, 97-98).

3. 바쉬코르트족의 종족기원신화

바쉬코르트는 튀르크어로 “머리”의 의미인 바쉬(Baş) 와 “이리”라는 의미인 코르트(Kort)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한 종족의 이름이 된 바쉬코르트족의 기원은 그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리와 연관되어 있다. 다음의 바쉬

코르트 종족기원신화(A)는 이슬람 포교를 위해 무함마드가 제자 세 명을 우랄산맥 부근으로 보냈는데 그 곳까지 잿빛 이리가 안내하였고 그 지역의 종족들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인 후 자신들의 종족명을 ‘바쉬코르트’로 지었다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세 명을 이슬람 종교의 전파를 위하여 우랄산맥 부근에 보냈다. 이 제자들을 우랄산맥 부근까지 잿빛 이리(Bozkurt)가 길을 안내를 하였다. 우랄산맥 부근의 종족들은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인 후에 자신들을 바쉬코르트라고 이름 붙였다.

유라시아 튀르크족의 유물과 유적들 가운데 다양한 동물모양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라시아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 상 고대로부터 가축과 더불어 살아 온 유목민족의 삶과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슴, 이리, 말, 염소, 산양 등은 유목민족들 가운데 신화적 동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들이다. 특히 이리는 튀르크족의 신화적 동물로서 대표되며 튀르크족을 상징하기도 한다(Eberhard 1942, 87-88). 유라시아에 구전되어 오는 서사시를 연구한 포타닌(Potanin)은 여러 종족 신화에서 보이는 이리 모티브는 튀르크족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⁶⁾. 중국의 여러 연대기에 등장하는 튀르크족의 조상으로 묘사된 이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튀르크 문학의 주요 소재로 종종 등장한다. 이리는 시대와 종족 따라 튀르크족의 조상이며 수호자이며 지도자의 표상으로 묘사되었다. 튀르크족의 전설상의 전쟁영웅인 오우즈 카간 설화에서 빛과 함께 등장한 이리는 튀르크족의 길 안내자로서 수호신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이리의 역할은 바쉬코르트족의 기원신화에도 동일한 모티브로 등장한 것이다. 한편 20세기 터키 공화국 초기 한 그림엽서에는 초대대통령이자 국부인 아타튀르크(Ataturk)와 오스만 제국의 파티히 술탄 메흐멧 및 1071년 말라즈기르트 전쟁의 승리자인 알프 아르슬란을 나란히 오우즈 카간 설화 속의 보즈쿠르트(Bozkurt ‘잿빛 이리’)

6) 이리기원신화의 기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 ‘돌궐족의 기원신화에 나타난 이리 모티브 소고’를 참고하시오(김효정 2002, 241-258).

와 함께 그들의 지도자로서 표현하였다. 이는 튀르크족이 정복지를 향하여 출정할 때마다 오우즈 카간의 군대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휘하는 하늘로부터 온 자신들의 지도자며 수호자로서 이리에 대한 튀르크족의 원시사고와 상징성을 재현시키고 상징화한 것으로써 이리에 대한 당시 터키족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http://www.turkfederasyon.com/html/bozkurt.html>.2008.08.17).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리는 연연히 튀르크족 가운데 신화적 상징으로서 존재하여 온 것이다. 위의 바쉬코르트 기원신화 역시 무함마드가 이슬람 포교를 위해 보낸 제자들을 쫓아 이리가 우랄산맥 부근까지 안내한다는 이리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다음은 무함마드, 이슬람 전파 등 이슬람 요소가 빠져 있는 바쉬코르트족 기원신화 (B) 이다. 이는 부르잔 바쉬코르트인과 급착 바쉬코르트인의 민간 설화 가운데 구전되어 오던 내용을 1895년 바의쉬오울루(Bayısoğlu)가 출간한 것이다(Inan 1968, 74):

옛날 극동의 어느 높고 눈 덮인 산들이 있는 지역에 한 조상에서 비롯된 바쉬코르트족, 노가이족, 카자흐족, 키르기즈족 등이 함께 살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부족들은 바쉬코르트족, 노가이족, 카자흐족, 키르기즈족 등과 같은 구분은 아직 없었다. 어느 날 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이 종족의 지도자가 사냥을 하러 가는데 한 이리가 나타났다. 그 지도자는 이리를 따라 가다 보니 천국과 같이 좋은 숲과 강이 있는 거대한 산에 이르렀다. 그러자 갑자기 이리는 사라졌다. 그 지도자는 신(tengri)이 자신에게 복을 주려고 이곳으로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리를 보내준 것으로 생각했다. 지도자는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 자기의 종족만을 데리고 우랄산맥 부근으로 이주해 왔다. '이리가 지도자가 되어 이주한 종족' 이라는 의미로 '바쉬코르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편 바의쉬오울루(Bayısoğlu)가 출간한 바쉬코르트족의 기원신화 (B) 는 튀르크족의 분화과정, 유목문화 특성, 유목민족의 절대신인 텡그리 신앙 및 튀르크족의 조상으로서 이리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하는 등 튀르크족의 세계

관과 원시사고 및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슬람 종교 전파를 위해 파견된 무함마드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리가 길 안내자로 등장하여 바쉬코르트라는 종족명이 붙여진 기원신화(A)의 원형으로 보인다. 즉 무함마드, 이슬람 포교 등 이슬람 요소가 첨가된 기원신화는 바의쉬오올루 기원신화의 이슬람 수용이후 각색된 변이형이다. 튀르크족의 원시사고와 정서를 나타내는 모티브는 존재하지만 부분적으로 각색되고 첨삭된 원형의 변이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리를 신화적 조상이자 자신들의 수호자로서 상징하여 온 튀르크족의 이리에 대한 신화적 상징성에 이슬람 종교를 수용한 바쉬코르트족이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바쉬코르트 종족기원신화의 원형에 이슬람 요소를 첨가시켜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연대기에 기록된 돌궐족의 기원신화에서 조상으로 등장하는 이리 모티브가 일한국 시대에 라시드 앳 딘에 의해서 저술된 『집사』에서는 삭제된 것과 대비된다.

4. 카자흐족의 지도자 쟁기즈 칸의 종족기원신화

카자흐족의 지도자인 쟁기즈 칸의 종족기원신화에서 쟁기즈 칸은 알라의 빛에 의해 잉태된 자이다. 어느 날 칸의 아내가 딸을 낳았는데 칸과 그의 아내는 그 딸이 너무 아름다워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두어 키웠다. 어느 날 그 딸이 몰래 바깥세상을 본 이후 알라로부터 빛을 받아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아 쟁기즈라고 하고 그가 카자흐의 지도자 칸이 된다는 내용이다. 카자흐족의 지도자가 평범한 인물이 아닌 알라로 비롯된 신성한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쟁기즈 칸의 종족신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adloff 1999, 333-340):

옛날에 알튼벨이라는 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카이슬르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잉태를 하였다. 날이 차 딸을 낳았는데 그 얼굴이 달과 같고 눈이 빛과 같았다. 한의 부인은 그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절하여 몇 날이고 깨어나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렇게 아름다운 딸의 소식을 들은 한은 그의 딸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게 먼

곳에서 쇠로 만든 벽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집에서 딸을 키우게 하였다. 그 딸이 자라 소녀가 되어 밖의 세상을 보고 싶다고 간청하자 유모는 몰래 소녀를 밖으로 인도하였다. 소녀가 밝은 세상을 보자 마치 몸이 논는 것처럼 기절해 버렸다. 밖을 구경한 바로 그날 알라로부터 온 빛에 의해 임신이 하게 되었다. 날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오고 유모 역시 소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유모는 한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한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딸을 죽이라 명하였으나 한의 아내는 황금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어 보냈다... 중략.. 소녀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쟁기즈라 지었다. 그 당시 그 나라의 지도자 칸이 죽고 마땅한 인물이 없을 때 쟁기즈가 칸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다. 쟁기즈의 어머니는 토타울 메르겐과 결혼하여 아들 셋을 두었는데 이 아들들이 쟁기즈를 시샘하여 칸의 자리를 찬탈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 때 쟁기즈는 강 위의 할아버지 땅으로 가서 살 것을 결심하고 어머니와 작별하고 길을 떠났다. 쟁기즈가 떠난 이후 그의 동생이 칸이 되었으나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쟁기즈를 찾아 강 위의 땅으로 떠났다. 쟁기즈를 찾은 백성들은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쟁기즈를 데리고 왔으나 이미 그 나라의 칸이 된 쟁기즈의 동생과 그의 무리들이 쟁기즈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백성의 그의 어머니에게 선택권을 주며 어떤 아들이 나라의 지도자 칸이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그의 어머니는 칸의 자격을 검증할 테스트를 낸다. 태양을 향하여 공중에 활을 쏘아 떨어지지 않게 공중에 떠 있게 하는 자가 칸이 될 것이라 하였다. 쟁기즈와 함께 쟁기즈의 동생인 세 아들 모두 공중에 활을 띄웠는데 쟁기즈의 것만 공중에 떠 있고 나머지 것은 모두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여 쟁기즈가 다시 칸이 되어 나라를 안정을 되찾고 부흥되기 시작하였다.

튀르크족의 여러 설화 가운데 해와 달의 빛은 유목민족의 지도자 칸의 기원과 그의 신성성을 나타내는 모티브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목민족의 지도자는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달라야 하고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존재로 그 신성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튀르

크 설화에서 그 신성성은 하늘에 존재하는 태양과 달의 빛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곧 유목민족의 절대신인 텡그리와 연관 짓는다⁷⁾. 흉노의 지도자 명칭인 ‘탱리고도선우(撐犁孤塗單于)⁸⁾’와 위구르의 지도자 명칭인 ‘이디쿿(idikut)’은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 신성한 존재, 폐하’라는 의미이다(Arat 1987, 474). 그러므로 쟁기즈 칸이 빛으로 잉태된다는 모티브는 위구르족의 부우한 종족기원신화에서 등장한 빛 모티브의 재현인 것이다⁹⁾. 쟁기즈 칸 종족기원신화에서 활을 태양으로 향하여 공중에 쏘아 공중에서 활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자가 칸의 자격을 갖는 검증 테스트는 빛 모티브와 더불어 유목민족의 텡그리 신앙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즉, 쟁기즈 칸 설화의 빛 모티브는 하늘의 권위와 신성함을 나타내는 튀르크족의 절대신인 텡그리에 대한 신앙의 표출이며 카자흐족이 이슬람을 수용한 이후 이슬람 요소를 첨가시켜 텡그리의 빛이 아닌 알라의 빛으로 대체된 것이다.

5. 사투부우라 한(Satuk Bugra Han) 설화

-
- 7) 튀르크족과 텡그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김효정(2007, 387-406), “튀르크족의 기록에 나타난 ‘텡그리(tengri)’의 의미”.
- 8) 흉노 지도자 선우는 ‘탱리고도선우(撐犁孤塗單于)’의 약자이며 이 어휘는 ‘탱리’와 ‘고도’ 및 ‘선우’로 이루어진 명사구로서, 여기서 ‘탱리(撐犁)’는 바로 ‘텡그리(Tengri)’의 음역이며 고도(孤塗)는 쿠트(kuti ‘그의 권위’ 혹은 ‘권위’), 즉 텡그리 쿿(tengri kut)으로 그 뜻은 ‘신성한(거룩한) 폐하(하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인 선우’라는 의미인 것이다(Tekin 1993, 10-11). 텡그리는 유라시아 유목민족들 가운데 유일한 창조신으로 묘사되며 일종의 종교형태를 취하고 있다. 훈, 타브가치, 돌궐, 위구르 등 유라시아의 여러 종족들이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여러 신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신(神)인 것이다. 튀르크족의 텡그리에 대한 원초적 개념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유일 무이한 신성한 존재로 튀르크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다스리며 튀르크족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잘 했을 때 상을 주는, 그들을 보호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 단지 복종의 대상인 튀르크족의 위대하고 거룩한 절대자인 것이다(Güngör 2002, 262).
- 9) 어느 날 밤 그 산의 한 나무 위에 하늘로부터 신비한 빛이 내려왔다. 두 강 사이의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이 이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무의 한가운데가 임신한 여인과 같이 불러오는 것이 보였다. 그 빛은 아홉 달 열흘 동안 나무의 불룩한 곳에 머물렀다. 시간이 차자 나무의 불룩한 곳이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다섯 명의 아기가 나왔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아기들을 데려다 키웠다. 이 어린이들 가운데 가장 어린 막내 아이의 이름이 ‘부우한(Buğu Han)’이었다. 부우한이 성장하여 일할 나이가 되자마자 모두를 복종시키고 지도자가 되었다(Köprülü 1980, 59-60).

카라한조(840-1212)는 돌궐제국과 위구르 제국의 멸망 이후 중앙아시아에 건설된 튀르크계 국가이다. 카라한조는 9세기 중엽 위구르 제국이 붕괴되자 튀르크계 카를룩 부족이 중앙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며 세운 국가로 중앙아시아 튀르크족 가운데 최초로 이슬람을 수용하였다. 카라한조는 960년 부그라 한의 통치 때 카라한조의 동부지역인 동튀르키스탄 전역이 이슬람화 되었다. 사투 부우라 한의 개종 과정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앙아시아 튀르크족의 이슬람 확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그의 개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고, 그의 이슬람 개종에 종교적 영감과 신성성이 첨가되면서 사투 부우라 한 설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설화는 형성된 후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튀르크족의 전 지역에 확산되었고 이슬람 이전의 튀르크 설화에 나타난 고유한 모티브들과 함께 이슬람 요소를 첨가하여 더욱 더 풍성한 설화적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카쉬가르 부근의 아르투즈 지방에 있는 그의 무덤은 무슬림들의 사랑받는 성묘이며 사투 부우라 한의 생애는 튀르크족들 사이에 전설적이고 설화적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테즈키레이 부우라 한(Tezkire-i Bugra Han) 이라는 작품에 기록되어 있다(<http://www.edebiyatdiyari.com/halk-edebiyati/turk-destanlari.html> 2008.09.11). 다음은 사투부우라 한 설화를 요약한 것이다(<http://www.turan.tc/td/destan.html> 2008.08.09)

무함마드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보게 된다. 그 가운데 모르는 한 사람에 대해 제브라일(Cebraïl)에게 물으니, 그 사람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무함마드가 하늘에 오른 지 3년 후에 땅에 내려와 당신의 종교를 튀르키스탄에 널리 퍼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수년이 지나서 카쉬가르 지도자의 한 아들이 태어나 그의 이름을 부우라 한이라 하였다. 부우라 한이 태어난 그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수원지가 말랐다. 부우라 한은 커서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점쟁이들이 말하며 죽일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점쟁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점쟁이들이 말한 것처럼 부우라 한이 무슬림이 되면 그

때 죽일 것을 간청하며 우선 아들의 죽임을 면하게 했다. 부우라 한이 12살이 되어 40명의 친구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 토끼 한 마리를 쫓기 시작했는데 토끼 쫓는데 정신이 팔려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토끼를 쫓던 부우라 한은 갑자기 토끼가 변하여 한 노인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 노인은 흐즈르(Hızır)였고 이슬람 종교적 교훈과 교리에 대해 부우라 한에게 설교하였다.

얼마 후 부우라 한의 아버지가 죽고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삼촌과 결혼하였다. 어느 날 밤 부우라 한이 그의 삼촌에게 이슬람 종교에 귀의 할 것을 권하자 삼촌은 거절하였다. 바로 그때 땅이 갈라지며 부우라 한의 삼촌은 땅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삼촌이 죽자 부우라 한이 지도자가 되었다. 부우라 한이 왕이 되자마자 튀르크족의 나라에 이슬람을 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전쟁에서 나가 승전하였다. 전쟁에서 그의 입에서부터 뿜어 나온 불은 모든 불신자들을 태우고 그가 검을 휘두르자 40명¹⁰⁾의 한꺼번에 배임을 당하였다. 이 검의 공포로 말미암아 사방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부우라 한이 90 살이 되자 나라의 모든 튀르크족은 무슬림이 되었다. 아무강에서 카라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슬람에 귀의하였고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이슬람이 전파되었다. 그 후 부우라 한은 신령한 명령을 받고 카쉬가르로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죽었다.

사투부우라 한 설화는 튀르크족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모티브를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수용과정과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사투부우라 한이 전쟁에서 입에서 뿜어내는 불, 검을 휘둘러 40인을 베는 등 초인간적인 행태와 전쟁에서의 백전백승으로 광대한 영토를 확장하는 등의 모티브는 유목민족의 전쟁영웅을 그린 튀르크족의 영웅설화에서 나타난 보편적 영웅상이다. 또한 40 숫자, 토끼(사슴)를 쫓다가 흐즈르(어떤 신성한 존재)를 만나는 부분이나 점쟁이(샤먼)이가 등장하는 부분도 튀르크 설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모티브이다. 반면 꾸란에 등장하는 무함마드와 제브라일 및 흐즈르

10) 튀르크 문화 속에서 숫자 4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İnan, Abdülkadir(1968, 238-240). "Türk Destan ve Masallarında 'kırklar' motifi",

(Sūrat Kahf 60-82) 등 이슬람의 선지자와 천사 및 성인이 등장하고 (<http://khydr.org/khydr.htm> 2008. 09.24) 이슬람으로 귀의할 것과 부우라 한의 포교 활동은 이슬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유목민족의 절대신인 텡그리를 믿는 천신신앙과 샤머니즘은 튀르크족의 고유한 신앙형태였고 10세기 카라한조 시대에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튀르크족 고유의 전통적 신앙을 저버리고 튀르크족을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하기까지 부우라 한은 실제적으로 초기에 많은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고 이것이 구전되어 설화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을 최초로 받아들인 튀르크계 국가로서 카라한조를 이슬람화한 장본인이 부우라 한이다. 그는 이슬람의 수용과 포교 과정에서 전통적 기반 위에서 세력을 얻은 기존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받았겠지만 전쟁에서의 영웅적 승리와 계속적인 영토의 확장으로 전통적인 튀르크족의 지도자상에 융합되어 튀르크족의 이슬람화에 기여한 존재로 카라한조의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었던 것이다.

6. 키르기즈족의 사슴설화

다음의 키르기즈족의 사슴 설화는 사슴, 무함마드, 사냥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장인물과 그 내용을 보건대 이슬람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설화이다. 이 설화에서 사냥꾼이 덫에 걸린 사슴을 죽이려고 하자 선지자 무함마드가 나타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어미사슴을 살리고 사냥꾼을 무슬림으로 귀의시키는 등 이슬람적 요소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Radloff III 2000, 555-559).

... 어떤 한 불신자 사냥꾼이 쳐 놓은 덫에 사슴이
 걸렸다.
 사냥꾼이 그 사슴을 데려다가 막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 무함마드가 그 곳에 이르러
 사냥꾼에게 인사하며 말하기를,
 그 사슴 대신에 나를 죽이시오.

이 가냘픈 사슴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소.
더군다나 이 사슴에게는 두마리의 새끼가 있다오.
무함마드: 어미사슴은 새끼들만을 생각한다오.
새끼들은 산 속의 한 샘 가까이에 있고,
어미를 기다리며 우는 소리가
알라(Allah)의 귀에도 들렸다오
불신자 : 당신은 산에서 금이 나온다면 캐겠지요?
나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 사슴이 가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
사슴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주겠어요?
무함마드: 산에서 금이 나온다면 캐겠지요.
당신의 거래를 승낙합니다.
이 사슴이 가서 오지 않는다면
사슴 대신 내 생명을 드리지요.

무함마드가 사슴의 보증인이 된 후
어미 사슴은 새끼들에게 빨리 뛰어갔답니다.

중 략

어미사슴 : 내 말을 무함마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두 마리의 내 새끼가 고아가 되지요
당신도 고아가 어떠한지 알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해주세요, 무함마드여
무함마드 :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네게 조언하지
조금도 지체말고 불신자에게로 가라
눈물을 흘리며 가라
아마 너의 절규와 눈물이 알라에게 도달하리라

불신자는 사슴을 보고 주위를 맴돌다
즉시 붙잡아 목을 허리띠로 묶는다
사슴을 몸을 치려는 찰나에
선지자 무함마드가 도달한다

선지자는 신성한 피의 소유자, 날쌔 말을 타고
산과 바위를 날면서 지난다
불신자여! 이 불쌍한 사슴을 놓아주고
유일한 진리의 길인 이슬람에 귀의하길 바라오

새들과 나이팅게일도 날아다니다 사막에 앉지요
알라도 나를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리라
사슴을 놓아 줍니다, 무함마드여!
나도 당신의 옳은 길로 들어서렵니다

새들도 나이팅게일도 날다가 쉬지요
던져진 화살들은 새들의 날개 아래로 지나간다
무슬림이 된 사람들은
진리의 길로 들어 선 것이라오

새들과 앵무새들은 날아다니다 쉬지요
나의 알라도 나를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하리라
사슴을 놓아 줍니다 무함마드여!
나는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알라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지나갔지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였지요
사슴을 놓아줍니다, 무함마드여!
우리 모두 우리의 소원대로 되었네요,
알라가 우리를 사랑하나봅니다.

사슴과 관련된 세계적인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존재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사슴이 인류의 정신세계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을 말해준다(아리엘 골란 2004, 156). 특히 유라시아에
존재하는 사슴 관련 여러 표현예술과 다양한 설화들은 유라시아 유목민족에

게도 사슴이 오래전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 것으로 사슴에 대한 그들의 정서와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튀르크족에게도 사슴은 신성한 신화적 동물로서 튀르크족의 역사상의 조상인 돌궐족의 설화를 비롯하여 여러 튀르크족들의 설화에 주요 등장인물로 묘사된다(Ögel, 1995, 101-109). 튀르크 설화 속에서 사슴은 튀르크족의 조상이며 바다여신, 길 안내자, 신이 사랑하는 동물,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 사면이나 성인의 승용 동물 등으로 등장한다(Korkmaz 2003, 70)¹¹. 키르기즈 사슴설화에서도 사슴은 사슴의 울음소리가 알라에게 들려 무함마드가 사냥꾼에게 놓아 줄 것을 간청해야하는 신성한 동물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위대한 신 알라가 사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무함마드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사슴은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사슴에 대한 정서는 키르기즈족의 설화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알타이 지방의 사가이(Sagay) 튀르크족의 설화에서도 사슴은 신이 사랑하는 존재로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사가이 튀르크족의 ‘알틴 푸르칸(Altin Purkan)’ 설화의 ‘사슴이 울자 하늘의 신도 땅도 신도 울었다’고 묘사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Radloff III 2000, 124).

... 말이 둔갑하여
 황금빛 뿔을 가진 암사슴으로 변했다.
 "이 땅을 내가 없애지 않는다면
 나를 아이카라스(Aykarasi)¹²의 새끼라고 부르지 마라
 이 세상은 내게 저주의 땅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암사슴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늘의 차안神과 땅의 아이나神도 울고 말았다.
 암사슴이 분을 발하며
 황금빛 뿔로 땅을 헤치더니
 하늘 위로 뛰어 올랐다.

11) 튀르크 설화와 사슴 모티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김효정(2006, 123-146). "튀르크 설화 속에 나타난 사슴 모티브 연구".

12) 아이카라스(Aykarasi)는 말 이름이며 카라한(Han)은 말의 주인이다. 일반적으로 유목민족 영웅들의 이름은 말의 이름과 함께 불린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태양이 빛나지 않았고
 흑암으로 변하여 밤과 낮이 같아졌다.
 달은 흙보다 검게 되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달이 비치지 않았다..<하략>

‘알튼 푸르칸(Altin Purkan)’ 설화는 주인공 ‘알튼 푸르칸’이라는 영웅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사가이(Sagay) 튀르크족은 남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유역의 안드로노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바칸(하카스) 튀르크족을 구성하는 종족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들의 언어는 하카스어 그룹에 속한다. 안드로노보 지역은 예니세이 돌궐비문 등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는 지역이며 아바칸 튀르크족은 알타이 튀르크족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튼 푸르칸’ 설화에는 그들의 고유한 유목민의 정서와 세계관을 나타내는 다양한 신화적 소재들이 등장한다. 이 설화의 발췌부분에서 말이 사슴으로 둔갑을 하였고 둔갑한 사슴이 울었는데 하늘과 땅의 신이 함께 울고 하늘의 해와 달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묘사는 사슴의 신성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神과 같은 사슴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카라스’라는 말의 새끼, 즉 망아지가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후 화를 내며 사슴으로 둔갑한 장면이다. 망아지가 사슴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 등장한 망아지도 평범한 동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망아지는 무슨 필요에 의해선지 자신의 형체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슴으로 둔갑한 것이다. 사슴으로 둔갑한 후 저주를 피부으며 울부짖는데 그 사슴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늘과 땅의 신들도 울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슴이 분을 발하다 하늘 위로 뛰어 올랐는데 그 노함으로 인해 해와 달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았다. 땅의 동물인 사슴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태양과 달의 빛에 영향을 주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슴이 땅의 동물이면서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태양과 달의 빛을 주관하였다면, 여기서 사슴은 하늘의 신과 연관이 있는 존재이거나 동물신임을 나타낸 것이다. 튀르크 설화에서 사슴은 종종 하늘로부터 신성한 권위를 부여받은 동물로 하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징된다(Jean-Paul

Roux 2002, 197). 키르기즈족의 사슴 설화에서 어미사슴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새끼들이 고아가 될 터인데 고아가 어떤지 잘 알지 모르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무함마드에게 조언을 구하는 대목에서 무함마드는 어미사슴에게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라고 이야기 한다. 어미사슴의 절규와 눈물이 알라에게 도달하리라는 대목은 알튼 푸르칸의 ‘암사슴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늘의 차안神과 땅의 아이나神도 울고 말았다’는 부분을 상기시킨다.

사슴설화의 끝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함마드가 이슬람으로 귀의할 것을 권하고 사냥꾼은 이를 받아들여 결국 무슬림이 된다. 튀르크족의 사슴에 대한 원시사고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사슴설화는 단지 포교용 설화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슴은 튀르크족의 신화적 동물로서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튀르크족의 문화와 문학 세계에서 신성성을 상징하던 튀르크족의 사슴에 대한 원시사고와 정서를 이해한다면 알라와 무함마드가 등장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알라와 무함마드가 등장하고 사냥꾼이 무슬림이 되는 등 이슬람 종교적 영향이 가미된 이 사슴 설화는 사슴을 신성시 여긴 튀르크족의 원시적 사고와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신도 울리는 사슴의 절규는 이슬람 수용 이후 이슬람적 요소를 융합시켜 알라도 울릴 수 있는 것으로 전이된 것이며 키르기즈인들에게 이슬람에 귀의하기를 권하는 포교성 설화로 재구성된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오우즈 카간 설화, 바쉬코르트족의 기원신화, 돌궐족의 기원신화, 카자흐 쟁기즈 칸의 종족기원신화, 사투부우라 한 설화, 키르기족의 사슴설화 등에 나타난 이슬람 요소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설화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튀르크족의 세계관과 사고 및 문화의 변동 과정을 잘 나타내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튀르크족이 이슬람을 수용한 이후 무슬림이 되어 변화된 사고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설화 속에 이슬람 요소가 첨가된 것이다.

한편 무슬림의 삶의 변화와 문화 변동으로 설화 속에 이슬람 요소가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튀르크족 고유의 문화와 원시사고를 나타내는 상징과 모티브들이 설화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고유한 튀르크족의 원시사고 및 세계관과 정서를 나타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수용 이후의 이슬람 교리나 문화적 영향으로 이슬람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튀르크 설화 속에서 이슬람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고유한 튀르크족 모티브의 대체

오우즈 카간 설화에서는 이슬람을 수용하기 이전의 유목 민족의 특성과 그들의 원시사고 및 세계관을 반영하는 상징과 모티브들이 사용되는 반면 이슬람 수용 이후 이슬람의 영향으로 고유한 튀르크족의 모티브들이 대체된 것을 볼 수 있다. 오우즈 카간 설화 (B) 에서 오우즈가 비범한 존재임을 다양한 튀르크족 고유의 원시사고에서 비롯된 모티브들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반면 오우즈 카간 설화 (A) 에서는 오우즈의 비범함의 첫 묘사는 무슬림으로 출생한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족의 쟁기즈 칸 종족기원설화의 전체적 구성은 전통적 유목민족의 정서와 사회상이 반영되고 그들의 원시신앙 형태를 잘 나타낸 튀르크족 고유의 모티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의 권위를 위임 받은 자인 지도자가 빛으로부터 잉태되는 모티브는 튀르크족과 유목민족의 천신신앙 및 태양숭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의 기원신화에 종종 등장한다. 이슬람 수용 이후 만들어진 설화로 보이는 쟁기즈 칸 설화에서 이 빛은 하늘로부터 비롯된 빛이 아닌 알라의 빛으로 대체된 것이다.

2) 고유한 튀르크족 모티브에 첨가

튀르크족 고유의 모티브에서 이슬람 수용 이후에 이슬람 요소를 첨가시킨 설화로는 바쉬코르트족의 기원설화와 키르기즈족의 사슴설화를 들 수 있다. 바쉬코르트족 기원설화(B) 에서 튀르크족의 조상이자 튀르크족의 수호동물인 이리가 길을 안내하여 한 종족을 이루는 반면 바쉬코르트족 기원설화 (A) 에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 포교를 위해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리가 길을 안내하여 도달한 종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또한 키르기즈족의 사슴설화는 무함마드와 알라를 등장시키고 적극적으로 이슬람 포교를 하고 불신자가 이슬람에 귀의하는 등 포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설화로 보인다. 그

러나 이 설화에 등장하는 사슴은 튀르크족을 포함한 전 유라시아 유목민족의 신성한 동물이다. 사슴설화는 알라와 무함마드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로서 사슴을 등장시켜 그 신성성을 나타내며 튀르크족의 원시사고와 정서를 표출한 설화로 이슬람 포교용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3) 이슬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의 삭제

에르케네쿰 설화와 오우즈 카간 설화 (A) 에서는 돌궐신화와 오우즈 카간 설화 (B) 에서 보이는 여러 신화적 상징과 유목민족적 특성 및 튀르크족의 원시사고 및 세계관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삭제되어 있다.

4) 알라, 무함마드, 호즈르, 체브라이일 등 이슬람 인물의 등장

5) 키르기즈족의 사슴설화와 같은 이슬람 포교용 설화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배제된 이슬람 수용 이후의 여러 튀르크 설화(Islamic Folklores in Turkic Peoples)에는 알라에게 기도, 금식, 성지순례 등 여러 종교행위, 이슬람 종교성 표현, 이슬람과 관련된 용어 사용(Helal, Haram, Mekka), 이슬람식 인사, 이슬람 종교 교육, 무슬림의 정체성 및 자존감 표현 등 그 내용과 모티브 면에서 이슬람 요소를 뺄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주제어 : 튀르크 설화, 유목민족 문화, 샤머니즘, 이슬람

참 고 문 헌

- 김효정(2002 a), "튀르크 문학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으로서의 이리 모티브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3-2호, 85-102.
- 김효정(2006 b). "튀르크 설화 속에 나타난 사슴 모티브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6-2호, 123-129.
- 김효정(2007c) . "튀르크족의 기록에 나타난 '텡그리'의 의미",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8-1호, 387-406.
- 라시드 앳 딘, 김호동 역주(2002). 『부족지』 사계절.
- 아리엘 골란, 정석배 옮김(2003), 『선사시대가 남긴 세계의 모든 문양』, 푸른역사.
- Arat, Reşid Rahmeti(1987). "Oğuz Kağan Destanı", *Makaleler cilt I*, Ankara, 605-672.
- Doğan, Ahmet(2002). "İslamiyet'ten Önceki Türk İnancına Dair". *Türkler 3*. Ankara.
- Elçin, Şükür(2005). *Halk Edebiyatına Giriş*, Ankara.
- Eberhard, D.W., Nimet Ulutuğ 역(1942), *Çin'in Şimal Komşuları*, Ankara.
- Güngör, Harun(2002). "Eski Türklerde Din ve Düşünce", *Türkler 3*. Ankara.
- İnan, Abdülkadir(1968 a). "Türk Destanlarına Genel Bir Bakış(1954)", *Makale ve İncelemeler*, 224-225.
- İnan, Abdülkadir(1968 b). "Türk Şamanizmi Hakkında". *Makaleler ve İncelemeler*, Ankara, 390-396.
- İnan, Abdülkadir(1968 c). "Türk Destan ve Masallarında 'kırklar' motifi", *Makale ve İncelemeler*, Ankara, 238-240.
- İnan, Abdülkadir(1968 d). "Türk Rivayetlerinde 'Bozkurt'", *Makale ve*

- İncelemeler*, Ankara, 69-75.
- İnan, Abdülkadir(1976 e). "Türk Destanları." *Türk Dünyası El Kitabı*,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45. Ankara. 377-389.
- Jean-Paul Roux(2002).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İstanbul.
- Kafesoğlu, İbrahim(1980). "Eski Türk Dini" *Türkler 3*. Ankara. 2002.
- Korkmaz, Esat(2003). "*Eski Türk İnançları ve Şamanizm Terimleri Sözlüğü*" İstanbul.
- Köprülü, Fuat(1980). *Türk Edebiyatı Tarihi*. Ankara.
- Ögel, Bahaeddin(1989) . *Türk Mitolojisi I*. TTK. Ankara.
- Ögel, Bahaeddin(1995) . *Türk Mitolojisi II*. TTK. Ankara.
- Radloff, Wilhelm(1999). *Türklerin Kökleri, Dilleri ve Halk Edebiyatı* II,III, Ankara.
- Radloff, Wilhelm(2000). *Türklerin Kökleri, Dilleri ve Halk Edebiyatı*, IV, Ankara.
- Reichl, Karl, Ekici, Metin 역(1992), *Türk Boylarının Destanları*, Ankara.
- Tekin, Talat(1993). *Hunların Dili*. Ankara.
- Turan, Fatma Ahsen(2002). "Eski Türklerde Tek Tanrı İnancı". *Türkler 3*. Ankara.
- Yıldız,, Naciye(1995). *Manas Destanı ve Kırgız Kültürü ile İlgili Tespit ve Tahliller*, Ankara,

<http://www.edebiyatdiyari.com/halk-edebiyati/turk-destanlari.html>(검색: 2008.09.11).

<http://www.turan.tc/td/destan.html> (검색 : 2008.09.10.)

<http://www.turkfederasyon.com/html/bozkurt.html>.(검색: 2008.08.17).

<http://khidr.org/khidr.htm> (검색: 2010.01.10)



김효정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앙 아시아어과
이메일 jung@pufs.ac.kr

논문접수일	2010년 1월 16일
심사완료일	2010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11일